

맞벌이 양육공백 해소...광주시 '아이돌봄' 전문성 강화

'아이돌봄미 스킵' 개설...이론·현장실습시간 120시간으로 대폭 늘려 교육기관 4곳으로 확대...돌봄서비스 수시 모니터링으로 서비스 개선

광주시가 맞벌이·한부모가정 등의 양육 공백을 돕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전문성을 대폭 강화한다. 광주시는 "올해 '아이돌봄미 역량강화스쿨'을 개설·운영하고, 아이돌봄미 교육기관의 이론 및 현장실습시간을 120시간으로 대폭 늘린다"고 5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전문교육을 받은 아이돌봄미가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에 직접 찾아가 임시보육, 등·하원 지원, 병원 동행 등 1대1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광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건수는 2021년 35

만 9000여건, 2022년 36만 7000여건, 2023년 40만 3000여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시는 돌봄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전문 교육 강화 필요성 등이 제기됨에 따라 아이돌봄미 교육기관의 이론 및 현장실습을 지난해 90시간에서 올해 120시간으로 대폭 늘리고, 아동 안전과 건강 관리 교육 등을 강화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총괄·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개소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돌봄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시로 진행하고, 서비스 이용가정과 아이돌봄미를 대상으로 전화·모바일,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서비스 개

선에나 나설 계획이다. 광주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는 오는 5월부터 '아이돌봄미 역량강화스쿨'을 운영하고, 영아돌봄 전문교육과 감정소진 예방교육 등을 강화한다. 내년부터는 아이돌봄미 교육기관을 광주대 평생교육원, 동강대 산학협력단 등 기존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1000여명에 달하는 아이돌봄미의 전문성 강화와 지리적 접근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광주시는 6일부터 12일까지 새로운 교육기관을 모집한다. 오영걸 광주시 여성가족국장은 "전문적인 아이돌봄미 양성교육과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양육자가 마음 편히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광주를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역량 있는 전문 교육기관들의 적극적인 공모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아픈 마음 다독이려 '안심버스'가 달려갑니다"

전남도,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운영...스트레스 측정 등

전남도가 마음 아픈 지역민들을 위로하러 나섰다. 전남도는 올해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를 5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첫 운행지는 신안 대울경로당. 경로당을 찾는 마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진, 스트레스 측정 등 마음 건강 상태를 살핀다. 마음안심버스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이어지면서 도민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취약계층의 정신건강 문제를 챙기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전남도는 올해 마음안심버스 운영을 통해 ▲정신건강검진 ▲스트레스 측정 ▲VR(가상현실) 힐

링 체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마음안심버스는 지난 2022년 함평군을 시작으로 지난해 전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올해는 여수시도 운영을 시작했다. 그동안 2108명을 검진해 이상소견 14명을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정신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희망 단체나 기관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마음안심버스 운행이 가능하다. 전남도 관계자는 "도민의 정신건강 향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 연계에 관심을 더욱 갖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시교육원 착공식 5일 오후 광주 북구 오치동 광주자연과학고 부지에서 열린 '광주시교육원 착공식'에서 강기정 광주시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정무광 광주시의회 의장 등 내빈들이 착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유효기간 만료일 도래... "광주상생카드 재발급 받으세요"

광주시, 재발급 문자 발송...다음달 1일부터 소액 자동충전 가능

광주시는 5일 "광주상생카드 유효기간 만료일이 오는 31일부터 도래함에 따라 카드를 재발급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광주상생카드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카드 뒷면에 유효기간이 기재돼 있다. 2019년 3월 도입한 만큼 이달부터 만료일이 도래하게 된다. 광주시는 광주상생카드 사용자의 권리와 편의의 도모를 위해 유효기간이 만료된 카드는 재발급을 통해 남은 충전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

이다. 특히 이번달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체크카드와 기명선불카드 대상자에게는 재발급 문자를 발송해 안내하고, 최근 6개월 이내 사용실적이 있는 체크카드의 경우 광주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재발급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6개월 이내 사용실적이 없고 유효기간이 지난 카드는 3개월 내에 광주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재발급받아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광주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카드헬프센터(1577-3650)로 문의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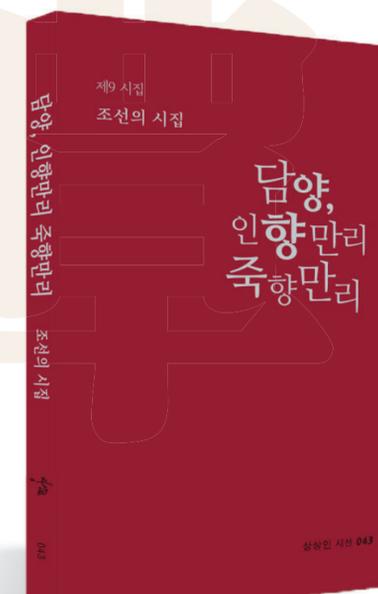
된다. 광주시는 또 광주상생카드의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소액금액도 자동충전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한다. 기존에는 10만원 이상 5만원 단위로 자동충전이 가능했지만, 4월 1일부터 1만원 이상 소액금액도 자동충전이 가능하다. 한편 광주상생카드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자본의 역외유출 방지를 위해 2019년 864억원, 2020년 8641억원 발행 등 2024년 1월 말까지 4조 원 이상 발행돼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경력 단절·이민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 소개

여성가족재단·전남광역새일센터 새일여성인턴 참여기업 모집도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일자리 소개해드립니다.' 전남여성가족재단·전남광역여성새일하기센터가 '새일여성인턴' 사업 참여기업과 참여 구직자를 모집한다. 새일여성인턴제도는 여성인력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과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연계, 3개월 인턴 기간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시스템. 올해는 100명을 목표로 상시 모집중이다. 참여 기업의 경우 인턴 기간 채용지원금(월 80만원·3개월)을 지원하고 인턴 종료 뒤 정규·상용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과 근로자에게 각각 장려금(기업 80만원·근로자

60만원)을 지급한다. 4대 보험 가입 및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체가 대상이다. 전일제 근무로 채용하는 경우 일반여성 주 35시간 이상, 결혼이민여성 주 30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제도 지원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시간제 근무는 일반여성 주 20-35시간 미만, 결혼이민여성 주 20-30시간 미만으로 근무 조건을 갖춰야 한다. 참여를 원하는 여성은 전남광역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필수)해야 한다. 6개월 이상의 경력단절 여성과 결혼이민여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 여성 등 취약계층은 우선지원 대상이다. 올해는 20·30대 우선 선발 기준을 정해 집중지원할 계획이다. 전남여성가족재단 관계자는 "도내 미취업 여성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노무상담 등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제9 시집
조선의 시집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조선의 시집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조선의 시인 043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 신춘문예, 미선21 신춘문예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임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지은이 | 조선의

펴낸 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